

사례와 면접을 통해 본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

Case Studies and Interviews to Review Public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송 경 진 (Kyeong-Jin Song)**

이 정 은 (Juengeun Lee)***

손 지 영 (Ji-Young Son)****

목 차

- | | |
|--------------------------|----------------------------------|
| 1. 서론 | 2.3 외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 |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지적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경험과 인식 |
| 1.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3.1 지적장애인서비스의 필요성과 사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
| 1.3 선행연구 | 3.2 지적장애인서비스의 문제점과 제약요인 |
| 2.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 현황 | 3.3 지적장애인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결과제 |
| 2.1 서비스 대상의 연령과 장애유형 | 4. 결론 및 논의 |
| 2.2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 | |

초 록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적장애인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직접 지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적장애인서비스는 대부분 상시적인 서비스보다는 단기간의 프로그램 형태였으며, 복지관 등의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직접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했던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연구결과 적절한 예산과 인력 지원, 정책적인 견인 조치,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지적장애인서비스 모델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current status of Korean public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well as problems associated with managing the services, in order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implementation.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the researcher conducted a case study of current Korean public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is research also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librarians experienced in providing such servi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services are provided with the support of a community welfare center, in the form of a program over short periods of time. The librarians agreed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rvices but emphasized various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service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possible points of consideration, including support for increased funding, more qualified personnel, adequate policies, and development of a model servic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키워드: 지적장애인, 장애인서비스, 공공도서관

Intellectual Disability, Public Library Services, Case Studies

* 본 연구는 2012년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원한 연구과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해외 사례조사 및 국내 적용모델 개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사)포럼 문화와도서관 사무국장,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skj9033@naver.com)

*** 대전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lee0905@dju.kr)

**** 청주대학교 교직과 교수(sonjy@cj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3년 1월 14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2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197-219,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1.197]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공공도서관은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해왔으며, 지역사회구성원 모두에 대한 차별 없는 정보접근의 보장과 더불어 교육, 오락,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지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보접근에 대한 공평성은 오래 전부터 공공도서관의 주요 이념으로 각 기준과 헌장 등에 공표되어 왔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 IFLA)이 펴낸 『공공도서관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공공도서관서비스가 구성원 모두에게 이용 가능해야 하고 지역사회 내 특정집단에 국한되거나 다른 집단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언어적 소수집단,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도서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차별 없는 도서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어떤 이유로든 도서관의 일반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려한 도서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특수이용자집단에 대한 서비스' 규정을 지침에 포함시키고 있다(Koontz & Gubbin 2010).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5월에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입안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08년

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2011년 『도서관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능을 흡수, 확대한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2012년 9월 개관되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전체 장애인 인구를 고려할 때 아직도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매우 적고, 정확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거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펴낸 장애인서비스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공공도서관에 이용자등록을 한 장애인은 1관 당 평균 34명,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1관 당 평균 146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도서관 2012). 이는 2010년 말 기준 공공도서관 759개관의 1관 당 평균 등록회원수 21,462명의 0.15%, 1관 당 평균 도서관방문자수인 21,462명의 0.043% 수준에 불과하다(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 특히 이들 이용자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¹⁾의 경우 기타장애인 항목으로 분류되어 정확한 현황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또 장애인 대상 정보서비스의 유형도 대면상담, 수화통역, 정보검색, 녹음, 점역, 상호대차, 택배대출서비스 등으로 나타나(국립중앙도서관 2012, 81)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가 주로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적장애인이 공공도서관서비스에서 다른 장애를 가진 이용자보다 더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 1〉).

소외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들에게도 공공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정연경, 김성진 2008; Linley 2000; Curry 2008; Homles 2008). 실제로 정연경과 김성진(2008)이 전국의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1,77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내용에 따르면 시각장애인(11.24%)보다 지적장애인(18.80%)의 도서관 이용경험이 더 많았으며, Holmes(2008)의 연구에서도 발달장애를 가진 조사대상자의 69%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지적장애인도 도서관이용자로 적극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도서관서비스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감각장애를 가진 이용자에게 대한 장애인서비스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태는 통계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장애인 서비스가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의 결과를 토대로 지적장애인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국내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와 관련

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우선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서비스는 주로 어떠한 것이며, 서비스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였다. 다른 하나는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직접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지적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문헌과 사서커뮤니티를 통해 사례를 입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사례수집은 모두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우선 문헌고찰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사업결과로 발간했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2008~2011)에 포함된 지적장애인서비스 사례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사업'에 선정된 수상도서관들이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를 각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고 그 중에 포함된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대의 사서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메일링리스트(도메리: <http://www.domeri.kr>)'를 통해 직접 사서들에게 정보를 요청하여 E-메일로 해당 사례를 수집하였다.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을 통한 조사는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전담 부서가 매년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공모한 결과이므로 어떤 자료보다 현재의 장애인서비스 현황

〈표 1〉 면접조사 대상자의 직무배경

대상자	소속기관 유형	지역	사서직 근무년수	장애인서비스 담당 기간
사서A	구립, 위탁	서울	5년	7개월
사서B	구립, 위탁	서울	12년	1년 6개월
사서C	교육청, 직영	서울	8년	1년
사서D	교육청, 직영	경남	5년	1년 미만
사서E	교육청, 직영	전남	7년 5개월	4년 3개월

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집경로로 채택하였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도서관에 대한 서비스 현황 분석은 국가도서관통계 기준 2010년 말 현재 759개관에 달하는 국내 공공도서관 전체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서비스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것과 평가를 통해 검증된 도서관의 경우 보다 선진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 대부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사서커뮤니티를 통한 경우는 위의 두 경로에서 누락된 사례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서 채택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지적장애인서비스 관련 경험과 인식에 대한 조사는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대상은 앞의 사례분석에 포함된 도서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 5명이었으며, 이들의 근무연수는 평균 7년, 장애인서비스 담당 기간은 평균 1년 6개월 정도였다(〈표 1〉 참조).

면접조사에 필요한 질문은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화된 상태로 준비하였으나, 면접대

상자들에게 미리 질문지를 노출하지는 않았으며, 면접과정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면접흐름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조사자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연구자 1인과 특수교육학을 전공한 1인이었으며, 면접대상자 5인을 포함 7인의 참가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면접내용은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위해 면접대상자의 사전 허락 하에 녹음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전사본으로 작성한 후 면접에 참여했던 연구자 2인이 개별적으로 범주화작업을 실시하였다. 전사본 내용을 질문 영역별 하위 범주로 구분하는 1차 범주화 작업 후 2차로 하위 범주들에서 연관성 및 유사성을 가진 주제끼리 다시 묶는 범주화작업을 하고, 다시 두 사람의 검토를 통해 각 범주에 대한 명칭을 결정하였다.

1.3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기존에 도서관에서 제공되던 장애인서비스의 대다수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주로 진행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 앞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도서관서비스의 장애인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조용완(2007)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의 현 단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58개의 공립 공공도서관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은 24개(41%)였다. 대개의 경우 도서 택배 배달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1개의 도서관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연경과 김성진(2008)은 장애인 931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도서관 이용경험에서는 지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앞섰으나, 실제 도서관 이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 이용경험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은 67.2%(n=227), 시각장애인은 64.8%(n=46)가 도서관정보서비스의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지적장애인은 전체 97명 중에서 8.3%(n=8)만이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낮은 이유로는 서비스 자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적장애인은 도서관안내책자 및 소식지(57%), 이동도서관서비스(14%), 컴퓨터 교육(12%)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희, 안인자, 박미영(2011)의 장애인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홍보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국내 장애인이용자

의 도서관서비스 홍보경험은 32.4%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전혀 홍보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인서비스 개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김혜주 등(2010)은 장애인이 도서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애의 유형을 물리적 장애, 자료적 장애, 의사소통적 장애로 보고 이 중 지적장애인은 자료적 장애를 가장 심하게 겪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지적장애인을 위해 읽기 쉬운 책을 제공하는 등의 자료적 서비스와 함께 방문대출, 우편대출, 택배대출, 온라인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이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윤희운(2010)은 주요 국가의 장애인용 대체자료 개발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와 유사한 장애개념으로서 독서장애인과 인식장애인을 위해 대활자본, 테이프, 데이지, CD/DVD, 웹사이트, 읽기 쉬운 도서 등의 대체자료가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숙희(2011)는 각 장애유형별 서비스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지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1) 운동기능 및 감각장애를 동반하는 중복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2) 녹음도서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도서, 디지털 토크북(데이지), 스페셜 나레이션 음성도서 같은 대체자료를 제공하며, 3) 텍스트 전용 페이지 음성기능을 추가하는 등 웹 접근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지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특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중증의 장애를 가진 방문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최근 들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관에서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류명옥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49개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서교사자격증이 없는 특수교육전공 교사로 교과수업과 도서관운영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도서관의 주요 서비스는 도서관이용교육, 교과와 연계한 도서관활용 수업, 대출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미숙과 송기호(2011a)는 특수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 6명을 대상으로 질적 면접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수의 학생들만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낮고, 도서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 도서관의 상근자가 부재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일반학교 도서관의 장애학생 이용에 대한 이미숙과 송기호의 연구(2011b)에서는 사서교사들이 장애학생의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들의 행동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애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일반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이 증진되고, 독서활동을 통한 학습능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강숙희(2012)는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사서교사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장애아동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질적인 삶을 보장하고,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원 하는 통합교육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나 사서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함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지적장애인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매우 미미하며, 홍보도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은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노영희, 안인자, 박미영 2011; 정연경, 김성진 2008; 조용완 2007). 둘째, 지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위해 편의시설, 대체자료, 웹접근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특히 자료로 인한 장애를 가장 많이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대체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강숙희 2011; 김혜주 등 2010; 윤희운 2010). 셋째, 학령기 지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크나 특수학교의 도서관 담당교사는 사서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통합학교에서의 사서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강숙희 2012; 류명옥 등 2012; 이미숙, 송기호 2011a; 2011b),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지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필요성과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서비스의 실태나 문제점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해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직접 그러한 서비스를 운영했던 사서

들의 입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 및 논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 서비스 현황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전국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이 유일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자료의 장애유형에 대한 구분에서 지적장애인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직접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을 통해서 총 27건의 사례 중 13건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나타났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사업' 결과 선정된 수상도서관들의 사례에서는 조사시점인 2012년 9월 현재 수상도서관 39개관이 운영 중인 총 1,133개의 서비스 중 8개 도서관의 7개 서비스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나타났다.²⁾ 하지만 이 7개 서비스 중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는 단 2건에 불과하였다. 한편 '도메리'를 통해 E-메일로 수집된 사례는 총 4건이었으나 1건만이 위의 두 경로에서 수집되지 않은 사례로 포함되었다. 조사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서비스는 단기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도서관의 상시적인 서비스에 포함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택배대출이나 방문대출 서비스로 나타났다.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수집된 사례 중 지적장애인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총 15개 도서관의 16개 서비스였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 현황

서비스 유형	서비스 사례	도서관명	주요 내용	수집경로
상시 제공 서비스	(1) 장애인 방문대출 서비스	군포시 중앙도서관	•관내 거주자 중 5급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대출(1회 5권 14일/1회 한하여 연장)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수상도서관
	(2) 소외계층 도서관 지원 서비스	전주시립도서관	•이동도서관 차량을 활용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단체 대출 및 개인에 대한 무료 택배 서비스 제공	2009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도서관 프로그램	(3) 장애아동 1일 도서관체험학습	울산 남부도서관	•특수학급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체험학습활동 •도서관에 대한 기초교육, 동화구연, 특수자료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2008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4) 하늘 빛 사랑	부산 구포도서관	•유관 장애인시설을 찾아가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2009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5) 지적장애인 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	서울 남산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사서가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집단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2009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2) 국가보조금을 통한 택배 대출 서비스인 '책나래서비스'처럼 모든 공공도서관이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한 건으로 처리하였다.

서비스 유형	서비스 사례	도서관명	주요 내용	수집경로
도서관 프로그램	(6) 등등 책소리방	한국 점자도서관	• 장애아동을 위한 이동도서관인 '북(book)소리 버스'를 이용해 버스 안에서 발달장애, 자폐 등의 중복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오르프 악기를 이용해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	2010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7) 행복을 주는 스토리 텔링	안산 감골도서관	• 뇌병변, 지체, 발달 및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전문강사와 사서, 보조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시설로 찾아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8) 특수학생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 독서 문화교실 및 책으로의 여행	경기도립 발안도서관	• 특수학급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교실 개최	
	(9)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남양주 외부도서관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전문가의 주도아래 도서관내에서, 그리고 연계기관을 방문하여 시행	
	(10) 얼굴을 마주보고: 독서장애인과 함께 하는 대면낭독 프로그램	인천 화도진도서관	• 시각장애인, 중학생 등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 입원환자들이 수용된 병원을 찾아가 낭독을 해주고 서로 교감하는 프로그램	
	(11) 여성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호공예	담양 공공도서관	• 지적 장애를 가진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복지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호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 • 프로그램 후 동아리 활동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이용 동기 부여	2011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12) 행복나르미	김해도서관	• 장애인들이 체험하기 어려운 요가, 스포츠댄스, 자연문화체험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연계시설을 방문하여 제공	
	(13) 도서관 체험의 날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님도서관	• 장애어린이가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용교육, 동화구연, 자율독서 등으로 구성된 1일 프로그램을 시행	
	(14) 장애 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부산시 시민도서관	• 시민도서관과 부산진구 소재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미술치료, 요가, 장애인가족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15) 찾아가는 휴(休)독서	김해도서관	• 지적·정신 장애인의 심적 안정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 해당 연계기관으로 찾아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수상도서관
	(16) 책과 함께 티타임	마포 해오름도서관	• 마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속한 지적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사서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하여 좋은 그림책을 소개하고, 책 읽어주기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함	도서관메일링 리스트

2.1 서비스 대상의 연령과 장애유형

수집된 16개 사례는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³⁾을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가 전체 사례 중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의 연령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3건이었다. 대상의 연령을 특정하지 않은 3건은 택배 및 방문을 통해 자료를 대출해주는 상시적인 서비스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책 읽어주기나 독서체험, 독후활동, 독서치료, 동화구연 등 독서와 관련된 서비스였다. 반면, 성인기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요가, 스포츠댄스 같은 체력증진

프로그램이나 공예프로그램 등 독서활동 이외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1건이 포함되었는데 치매, 파킨슨 등 노인에게 빈발하는 장애를 앓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1:1로 책을 읽어주는 대면낭독 서비스였다. 서비스대상의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만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지적장애를 동반한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 등으로 서비스대상자를 명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장애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택배 및 방문 대출 서비스였다.

대상의 연령 및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대상의 연령 및 장애유형별 지적장애인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사례	대상연령	장애유형	내용
(1) 장애인 방문대출서비스	특정하지 않음	신체적, 정신적 지체장애인	방문대출
(2) 소외계층 도서관 지원 서비스	특정하지 않음	뇌병변, 정신지체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	택배, 방문, 단체 대출, 독서상담
(3) 장애아동 1일 도서관체험학습	초등학생	특수학급 학생	독서체험, 이용자교육, 책 읽어주기
(4) 하늘 빛 사랑	학령기 아동, 성인	지체장애 및 정신장애	체력증진, 레크리에이션, 공예 등
(5) 지적장애인 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	학령전기 아동, 초등학생	정신지체 등 지적장애	집단독서, 독후활동
(6) 동등 책소리방	학령기 아동	발달장애 및 자폐 등의 중복장애	책 읽어주기
(7) 행복을 주는 스토리텔링	학령전기 아동, 초등학생	뇌병변, 지체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입체동화구연
(8) 특수학생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 독서문화교실 및 책으로의 여행	학령기청소년 (초·중학생)	특수학급 학생	미술치료, 구연동화
(9)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학령기 아동	지적 장애	독서치료
(10) 얼굴을 마주보고	노인을 포함한 성인	뇌졸중, 치매, 파킨슨씨 병	책 읽어주기(1:1 대면낭독)
(11) 여성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호공예	성인	지적장애 및 신체장애	공예(지호공예)
(12) 행복나르미	학령기 아동, 청소년, 성인	지적, 발달장애, 중증장애	스포츠댄스, 요가, 문화체험
(13) 도서관 체험의 날	학령기 아동	지적, 발달 장애	이용자교육, 동화구연, 독서체험
(14) 장애 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학령기 아동, 청소년, 성인	지적, 자폐성 장애	미술치료, 음악치료, 요가
(15) 찾아가는 휴(休) 독서	특정하지 않음	지적, 정신 장애	독서치료
(16) 책과 함께 티타임	성인	지체장애 및 정신장애	독서체험, 독후활동

3) 학령기 아동은 어떤 등급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자격이 있는 연령층에 있는 아동으로 통상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발생하는 연령에 속한 아이들을 말하며 이 시기는 대체로 6~12세에 해당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표 4〉 운영방식에 따른 지적장애인서비스의 내용과 사례

운영방식	서비스 내용	서비스 사례
도서관 외부에서 도서관 인력에 의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대출, 택배대출 • 시설방문 독서치료 • 이동도서관을 이용한 아웃리치서비스 	(1), (2), (5), (6)
도서관 내에서 도서관 인력에 의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체험 • 독서와 독후활동 	(3), (13), (16)
도서관 내에서 외부 전문가에 의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호공예와 동아리 활동 	(11)
도서관 외부에서 외부 전문가에 의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치료, 미술치료, 신체증진활동, 레크리에이션, 자연체험 등 	(4), (7), (8), (9), (10), (12), (14), (15)

2.2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

수집된 사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방문대출, 택배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에,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짧게는 1일 1회로 끝나는 단기 프로그램에서부터 주 1회~2회씩 10회~20회로 운영되는 경우까지 다양했으며, 1일 1회로 끝나는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방문해서 이용자교육, 동화구연 등을 직접 해보는 체험학습이나 견학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도서관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적장애인이 수용된 시설, 특수학교나 복지관 등 외부기관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진행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이 많았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일반 이용자와 함께 하는 공간에서의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외부에서 외부 전문인력에 의해 도서관의 자료와 사서가 배제된 채 운영된다는 점에서 과연 도서관의 서비스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호공예 활동에 참가한 장애인들을 도서관내 동아리활동으로 연계시켜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 동기를 부여한 담양 공공도서관의 사례는 현재의 서비스 내용보다는 장기적인 지적장애인의 도서관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표 4〉 참조).

2.3 외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

16개 사례 중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외부기관의 협력과 연계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방문대출서비스 정도였다. 그러나 방문대출의 경우에도 장애인시설에 대해 단체대출을 하는 경우 단체대출을 요청하는 장애인시설과의 연계가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각 공공도서관들이 협력하고 연계했던 기관들은 복지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병원 등 다양했으나 연계 및 협력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은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제공이거나 장애인 인술을 지원하는 인력의 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모집, 서비스 신청 등에 그쳐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표 5〉 참조).

〈표 5〉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연계기관과 협력내용

서비스 사례	연계기관	협력내용
(1)	-	-
(2)	장애인시설	단체대출신청
(3)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	참가대상자 모집
(4)	복지관 및 장애인시설	장소제공
(5)	장애인시설	장소제공
(6)	공공도서관	복소리버스 및 4인1팀의 인력과건
(7)	장애인시설	장소제공
(8)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등학교	장소제공
(9)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	장소제공/인솔인력 지원
(10)	병원, 노인요양원	장소제공
(11)	복지관	이동차량/인솔인력 지원
(12)	장애인시설, 복지관	장소제공/인솔인력 지원
(13)	복지관	인솔인력지원
(14)	복지관	장소제공/인솔인력 지원/복지관과 도서관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기획
(15)	병원	장소제공
(16)	복지관	복지사의 프로그램 기획 참여 및 장애인 인솔, 지도

〈표 6〉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주요 협력 사례

서비스 사례	서비스 내용	협력내용
(6) 동등 책소리방	• 발달장애나 자폐증상을 보이는 중복장애아동이 흥미를 갖도록 악기, 촉각자료 등을 이용해 책 내용을 전달	• 특수제작된 복소리버스와 전담인력, 보조인력, 버스운행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 파견
(14) 장애 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 지적,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음악치료, 요가 등	• 시민도서관과 부산진구 소재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
(16) 책과 함께 티타임	• 뇌병변, 지적장애가 있는 우리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속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기, 글쓰기 등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사와 사서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

협력사례 중 특기할만한 내용은 한국점자도서관(사례 6)과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사례 14), 마포해오름도서관(사례 16)의 사례였다(〈표 6〉 참조).

한국점자도서관의 이동도서관을 활용한 아웃리치서비스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점자도서관의 ‘북(book)소리 버스’를 파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장애인서비스에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사례로 볼 수 있었다.

반면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의 사례는 시민도서관과 부산진구 소재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사례로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도서관서비스를 이끌어낸 경우였으며, 장애인의 서비스요구를 파악하는 데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아의 부모들이 자발적인 자조단체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마포해오름도서관의 경우 복지시설과의 복합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시작된 경우로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을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가 도서관으로 동행하여 안내하고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기, 간단한 글쓰기 등의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다. 이 사례에서는 프로그램의 기획단계, 운영단계에서 모두 사서와 사회복지사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다.

3. 지적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경험과 인식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에 포함된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직접 운영한 경험을 가진 국내 공공

도서관의 사서 5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결과는 <표 7>과 같이 지적장애인서비스의 필요성과 사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지적장애인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과제에 대한 제안의 세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3.1 지적장애인서비스의 필요성과 사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3.1.1 지적장애인서비스의 당위성

면접에 참여한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의 이념, 사서직의 책무 등과 관련하여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사서들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저는 당연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서비스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도서관의 이용자잖아요.” (사서B, 전 사본 809-811)

<표 7> 사서 대상 표적집단면접의 결과 요약

주 제	하위 주제
1. 지적장애인서비스의 필요성과 사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1.1 지적장애인서비스의 당위성
	1.2 지적장애인서비스의 성격과 역할
2. 지적장애인서비스의 문제점과 제약요인	2.1 지적장애인에 대한 관련 교육 및 지침의 미비
	2.2 서비스에 대한 예산, 인력 등 가용 자원의 부족
	2.3 도서관장의 몰이해와 실적 위주의 평가
3. 지적장애인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결과제	3.1 지적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운영지침 지원
	3.2 장애인관련 기관 및 전문 인력과의 협력
	3.3 지적장애인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적 견인조치
	3.4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지적장애인 서비스 개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서들이나 관리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사서가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구요 ... (중략) ... 대체적으로 사서로서 입장은 ... 도서관과 관련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사서D, 전사본 164-165: 719-720)

3.1.2 지적장애인서비스의 성격과 역할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지적장애인들에게 도서관이 목적으로 하는 독서와 정보제공 등 도서관 고유의 활동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정보활용교육, 문해교육 등을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하는데 따른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사서가 되서 딜레마는 내가 평생학습사인가, 사서인가하는 생각이예요, 저는 도서관이 우선이라고 봐요, 평생학습은 도서관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하고 그 사람이 평생학습에 참여해서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사서E, 전사본 760-763)

“예전에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호응도 좋고 괜찮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도서관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 (중략) ... 사실은 그런 바운더리가 도서관의 영역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후에 다음에 하는 것은 독서프로그램이었어

요.” (사서B, 전사본 506-508: 518-5197)

3.2 지적장애인서비스의 문제점과 제약요인

3.2.1 지적장애인에 대한 관련 교육 및 지침의 미비

사서들은 공통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체계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사서 개인의 노력으로만 극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저는 일단 어려웠던 점은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 분들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 (중략) ...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한 건지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서A, 전사본 613-618)

“일단 사서에 대한 교육도 없고 장애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지적장애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용어를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사회복지사를 컨택해서 찾아서 공부하고, 장애인들을 보고 제가 연구해야 하는 제 몫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사서B, 전사본 420-422)

“막상 두 달 끝내고 그 다음 사람으로 교체가 될 때 같이 가서 주의사항이라던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한다 등의 인수인계를 받기는 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면서 깨닫고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고 도구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어, 이게 뭐지 싶은 경우도 있고요. 시행착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서C, 전사본 229-233)

3.2.2 서비스에 대한 예산, 인력 등 가용 자원의 부족

사서들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나 전담인력이 없다는 것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저해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패턴의 일회성 행사로 변질될 위험을 갖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면접대상자 5명 중 현재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서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기관이 바뀌고 보직이 순환되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는데, 사서들은 이러한 직무순환시스템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하였다.

“저희는 예산이 없거든요. 장애인 쪽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다른 데 있는 걸 억지로 끌어다 쓰는 형태예요. 뭐 출장비 이런 걸 끌어다 쓴다던가, 그리고 교구나 이런 건 본인의 돈으로 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 기준이 뒤로 밀려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서A, 전사본 623-626)

“저희가 이 서비스만 전담하려고 하는 도서관이 아닌데, 규모가 정규직도 사실 몇 명 안 되는데, (장애인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업무 담당자의 몫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서B, 전사본

401-402)

“너무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많고 서비스해야 될 대상은 많은데, 소수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하다 보면 반대로 다른 곳이 조금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력은 한정되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했던 방법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확대되기엔 너무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서C, 전사본 743-747)

“교육청 산하 도서관 특징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가고 나면 이 수업이 계속 될지 안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 (중략) ... 조그만 도서관에 직원이 4~5명밖에 안 되고 직원들이 모든 업무가 가능해야 하는데, 장애인 쪽 업무만 올인할 수 없어요.” (사서E, 전사본 312-313; 447-450)

3.2.3 도서관장의 몰이해와 실적 위주의 평가

사서들은 예산, 인력 등 자원의 부족과 더불어 이러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끌어오거나 재배치하는 권한이 있는 도서관장들의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가 적극적인 서비스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나치게 업적위주로 진행되는 현행 평가시스템도 문제로 꼽았다.

“이게 실적도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명이 거기 나가는 데 준비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오후 만나질은 다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그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막상 하는 실적은 4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 투입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사서C, 전사본 238-241)

“근데 저희같이 큰 기관들은 대상 수가 적으면 그렇게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하다못해 특강을 하더라도 20~30명 대상으로 하더라도 강의실에 몇 명 들어갈 수 있느냐 더 넓게 인원을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니까요.” (사서D, 전사본 109-112)

“장애인 시설에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온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기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관장님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사서E, 전사본 289-291)

3.3 지적장애인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결과제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수행하고 경험한 결과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3.3.1 지적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운영지침 지원

사서들은 지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에 대한 교육이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서비스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제공되기를 원했다. 특히, 교육의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뿐 아니라 단위도서관의 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들에게도 장애인서비스의 중요성, 필요성 등이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

적했다. 또한 복지기관 같은 지적장애인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이 도서관이용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도 서비스 요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조금이라도 뭔가 지식이 있으면 이 정도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 방향이구나 하는 걸 알 텐데, 아무리 가도 모르겠다는 거. 그런데 그건 교육이 부족해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이 계속 있으면 좀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서A, 전사본 620-622)

“저희가 다문화관계자연수를 일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처럼 복지관이나 센터, 그런 기관에 있는 선생님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수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선생님들이 도서관에서 뭘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애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한 번 와보던지 ... 아니면 도서관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서D, 전사본 583-586)

“저는 실무자교육도 중요한데 기관장들도 교육을 받아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갈 수 있는 의지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돈은 어떻게 끌어와서 쓰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분들 미인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실무자들은 기관장들이 시키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기관장들이 장애아동에 대해서 알고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사서E, 전사본 481-485)

또한 사서들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책

을 선정하는 것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장애 정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책에 대한 목록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제공되기를 바랐다.

“성인이니까 그림책이지만 아동 수준보다는 감동이 있는 책을 고르면 약간 조는 거예요. 감동보다는 장애인들은 급격히 어두워져요. 그래서 아, 밝은 책을 정해야겠구나 하고 느꼈죠.” (사서A, 전사본 675-676)

“초등학교 저학년엔 놓고 책을 선정하지만 이들의 지적 수준은 낮지만 삶을 살아온 것들은 보고 듣고 해온 것은 20여 년이 되니까, 그런 책을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책 선정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일반 아동인데 자라는 건 성인이라는 전제로 책을 고르고 질문을 해요.” (사서C, 전사본 640-643)

3.3.2 장애인관련 기관 및 전문 인력과의 협력
사서들은 지적장애인서비스는 해당 장애를 잘 이해해야하므로 이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복지관 등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이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장애인관련 기관 및 전문 인력과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사회복지사가 동반해서 오셨거든요. 남자 사회복지사한테 계속 오시라고 하는데 계속 와야 되요? 그러세요. 그런데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질문을 해도 내 질문을 사회복지사가 다시 통역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사서A, 전사본 683-685)

“복지관의 도움이 컸던 게, 저희는 자료선정 위원으로 복지관 팀장님을 위촉을 했어요. 장애인 자료를 확충하는 건 제가 보낸 장애인 자료고, 장애를 오히려 그분이 더 밀접하게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요구하시거나 건의하시는 장애인 자료를 우선 구입하구요. 그분을 저희가 많이 활용했어요.” (사서B, 전사본 833-836)

“둘이 같이 하는 것도 ... 종합복지관이나 센터복지관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있는 한 선생님하고 사서가 같이 수업 개요라던가 시트를 짜면서 하면 책을 선정하거나 어떤 걸 어떻게 강조를 해야 할 지가 나올 수 있겠어요.” (사서D, 전사본 651-653)

3.3.3 지적장애인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적 견인 조치

사서들은 교육이나 지침 같은 체계화된 지원, 유관기관과의 공조 네트워크 구축 같은 실질적인 방안들과 함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현재의 미미한 지적장애인서비스의 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정책적 견인 조치로는 평가의 활용, 보조금의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면 항상 뒤로 되니까, 물론 기관장이나 윗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도, 업무가 더 중요한 큰 덩어리들이 많다 보니 뒤로 밀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이것의 중요성 같은 것을 명시를 해준다거나...” (사서A, 전사본 628-631)

“좀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하고요. 정책적으로라든가요. 왜냐하면 저희 개개인의 봉사정신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미미하거든요.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압력이 온다든가 그러면 방향이 물꼬가 트이죠.” (사서D, 전사본 748-750)

하지만 사서들은 일관성 없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정책적 견인 조치들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특히 평가제도가 잘못 시행될 경우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애인서비스가 올 해 유행했다고 해서 내년엔 장애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문화가정도 몇 년 전에 유행했었지만 그들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끝내버리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기관에서 움직이는 건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 (중략) ... 지속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1년이나 2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프로그램에 집중이 되는 문제도 있고요.” (사서B, 전사본 432-434; 516-517)

“평가항목에 그런 것 있잖아요. 장애인 자료 몇 개 가지고 있느냐 ... 녹음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빌려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 사회복지사 분들이 안 해주시면 지적장애인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MP3파일을 다운받아서 집에서

듣는 게 한계인거죠. 이것이 그러면 적절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들잖아요.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지만, 이것이 정말 계속 필요한 건가. 다른데서 워낙 지원이 많으니까, 굳이 도서관에서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사서E, 전사본 790-799)

3.3.4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지적장애인서비스 개발

사서들은 효과적인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서들이 먼저 장애를 이해하고,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지적장애인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서들은 보조금이나 정책적 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서들 스스로 도서관 이용수업의 형태를 정하거나, 지적장애인들이 도서관 이용 경험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도서관 이용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도서관에 왔던 애들은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적어도 가봤던 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도 안 와봤던 애들은 저기에 저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방해 받는 사람도 있겠고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 경험 자체로도 중요해서 저는 그 경험을 확대해 주고 싶거든요.” (사서B, 전사본 895-899)

“저희가 외부 서비스만 했기 때문에 도서관 내부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

요. (장애인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도서관 소속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복지관도 중요하고 외부시설도 중요한데, 사실은 학교 안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장애인)들이 학교도서관만을 이용한다고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교육청 산하라면 학교 안에 있는 친구(장애인)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서C, 전사본 870-875)

“도서관 이용수업의 형태를 이젠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그 선생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수업을 상황에 맞춰서 하더라도, 1회는 도서관 나들이 식으로 도서관에 와서 그냥 맛있는 빵을 먹더라도 한번 와서 건물이라도 거닐어보고, 책 사이라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서D, 전사본 849-853)

사서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서들은 지적장애인서비스를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직의 책무 등에 비추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힘들어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고, 지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인해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전담하여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기관장의 인식부족과 실적위주의 평가시스템으로 인한 정책적 소외 등도 지적장애인서비스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현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적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와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의 제공, 복지관 및 사회복지사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가 가능한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보조금이나 평가 등을 통한 정책적 견인 조치를 꼽았다. 더불어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굴해내려는 공공도서관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은 개별 도서관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직접 발굴해내기보다는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단위 도서관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교육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대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과 같은 중앙차원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먼저 갖추고 개별 도서관의 역량과 자원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결과, 국내 지적장애인서비스는 대부분

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단기간의 프로그램 형태로 복지관 등의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내용에 있어서는 성인의 경우 레크리에이션이나 문화체험, 공예 등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대부분 미술치료, 독서치료 등의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 유형이 다양하지 않았다. 또한 복지관 등의 외부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은 장소의 제공이나 인솔인력의 지원 같은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면접조사 결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지적장애인서비스 운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나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지침과 가용자원의 부족, 기관장의 몰이해 등을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운영 지침,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과 더불어 정책적인 건인조치,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지적장애인서비스 모델의 발굴과 다양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는 가능한 한 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사례조사 결과 국내 지적장애인서비스는 그 유형이 다양하지 않았고, 책, 자료 등 도서관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본연의 기능을 전달하는 내용보다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독서치료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표적집단면접

에 참여한 사서들은 지적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이용자로서 도서관이 목적으로 하는 독서와 정보제공 등 도서관 고유의 활동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했다. 현실적으로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행동적 제한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서들의 바람을 서비스로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은 자원봉사자 및 도우미 활용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도서관 이용뿐 아니라 독서활동과 정보서비스 등도 지적장애인서비스로 고려해야 하며, 지적장애인들이 인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입각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도서관에서 지적장애인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나 복지관 등 외부 전문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사례조사 결과, 지적장애인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각 공공도서관들이 협력하고 연계했던 기관들은 복지관, 병원 등 다양했으나, 이러한 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은 대부분 장소제공이거나 장애인 인솔을 지원하는 인력 지원 등에 그쳐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사서와의 면접을 통해서도 현재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과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으로서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특수학교와의 연계 사례가 거의 없지만 학령기 지적장애인의 도서

관 이용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학령기의 지적장애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하게 된다면, 지적장애학생들도 도서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양한 외부기관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지적장애인들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도서 및 대체자료, 서비스 시행 지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에게도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표적집단면접 결과, 사서들은 지적장애인서비스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대체자료나 지적장애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적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음성, 삽화 등이 적절히 제공되고 도서 내용 및 사용 어휘의 난이도 등이 조절된 도서에 대한 목록이나, 이의 활용을 위한 지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중앙기관에서 대체자료 및 도서와 관련된 필요한 지침 및 목록을 작성하고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풍부한 대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가 장기적,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과 서비스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은 택배나 방문대출 등의 소극적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서와의 표적집단면접을 통해서도 인력 및 예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가용 자원의 부족, 기관장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지적장애인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에서 지적장애인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 공공도서관의 역량과 자원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사업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적 견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적장애인들에게 도서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홍보하고 목적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며,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려는 공공도서관의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가에 기초한 우수 사례와 사서커뮤니티를 통한 자발적인 정보제공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사례수집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서비스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수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

적장애인서비스 현황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하기에는 일부의 경험에 의지하고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관련 통계 조사,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다수의 사서들과의 심층면접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들을 구체화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숙희. 2011.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97-123.
- [2] 강숙희. 2012.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사서교사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1-25.
- [3] 국립중앙도서관. 2012. 『2011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 [4]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夏雨.
- [5] 김혜주, 안인자, 박미영, 이명희. 2010.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217-241.
- [6] 노영희, 안인자, 박미영. 2011.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이용자의 홍보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179-207.
- [7] 류명옥, 이미숙, 노진아. 2012. 정신지체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179-201.
- [8]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 [online]. [cited 2012.12.31]. <<http://www.libsta.go.kr>>.
- [9] 윤희운. 2010. 주요국가의 장애인용 대체자료 개발정책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29-49.
- [10] 이미숙, 송기호. 2011a.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현황 및 운영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3): 507-534.
- [11] 이미숙, 송기호. 2011b. 장애학생의 통합학교 도서관 이용에 대한 사서교사의 견해 분석.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54(4): 219-239.
- [12] 정연경, 김성진. 200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이용 및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301-323.
- [13] 조용완. 2007.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67-186.

- [14] Curry, Elizabeth and Laura J. Hodges. 1989. "Adult services." *RQ*, 28(4): 463-469.
- [15] Holmes, Jennifer L. 2008. "Patr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needs assessment survey." *New Library World*, 109(11): 533-545.
- [16] Linley, Rebecca. 2000. Public libraries, disability and social exclusion. *Social Exclusion Action Planning Network (UK) Working paper 11* [online]. [cited 2012.12.31].
<http://www.seapn.org.uk/content_files/files/vol3wp11.pdf>.
- [17] Koontz, Christie and Barbara Gubbin. 2010. *IFLA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 2nd ed. Berlin: New York: De Gruyter Sau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Sook-Hee. 2011. "A study on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by types of disabili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97-123.
- [2] Kang, Sook-Hee. 2012. "A study on the education for teacher librarians in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1-25.
- [3]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2. *2011 National survey for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y*. Seoul: National Library Support Center for the Disabled.
- [4] Korea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09. *The dictionary of special education*. Seoul: Hawoo.
- [5] Kim, Hye-Ju, Ahn, Inja, Park, Mi-Young, & Lee, Myeong-Hee. 2010. "A model on voluntary activity in library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1): 217-241.
- [6] Noh, Younghee, Ahn, In-Ja, & Park, Miyoung. 2011. "A study of differently-abled users' perception of public relations servic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179-207.
- [7] Ryu, Myung OK, Lee, Mi Suk, & Noh, Ji Na. 2012. "The survey research on the operation status and activation ways of special school libraries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4(1): 179-201.
- [8]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Library Statistics of Korea. [online]. [cited 2012. 12.31]. <<http://www.libsta.go.kr>>.
- [9] Yoon, Hee-Yoon. 2010. "Analysis of alternative development policy for the disabled persons

- in the major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29-49.
- [10] Lee, Mi Suk, & Song, Gi Ho. 2011a. “The current status and the perception of the teachers on the management of special school librar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3): 507-534.
- [11] Lee, Mi Suk, & Song, Gi Ho. 2011b. “The teacher librarians’ perception on the utiliz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inclusive school librar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54(4): 219-239.
- [12] Chung, Yeon-Kyoung, & Kim, Sung-Jin. 2008. “A study on the library service use and needs of disabled use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3): 301-323.
- [13] Cho, Yong-Wan. 2007. “Analysis of the Activities of Public Libraries for Closing the Information Divid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167-186.